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7호

### 체육시민연대 칼럼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學’생선수 – 학을 떼고 바라보는 시선**

이환 충북대학교 체육교육과

### 엘리트스포츠 전폭지원

尹 “엘리트 스포츠 전폭 지원”... 체육도 文 정부 지우기?

조은지 YTN 기자

### 기회 제공? ... 노동 착취?

**KBO와 각 구단이 뽑는 ‘대학생 마케터’ 노동 착취는 아니죠?**

황혜정 스포츠서울 기자

### 심판 인권 침해

**“감독, 선수가 욕하고 때리고 실해 위협까지” 英 심판 900명 단체 호소**

이현호 마이데일리 기자

### 한국 야구계 잡음과 악순환

**추신수의 ‘작심 발언’... 왜 팬들은 외면했나?**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야구계 악순환,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최익성 스포츠서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學’생선수 - 학을 떼고 바라보는 시선

이환 / 충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나는 첫 수업을 듣기 위해 체육관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다들 초면이어서 었을까? 침묵이 이어졌다. 한 무리가 들어와서 체육관 속 정적을 깼다. 그들은 이미 친한 듯 보였다. 수업은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들의 말소리.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교수의 말에 관심이 없는 듯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학생선수였다. 학생선수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행동도 납득이 됐다. 나는 일반학생이기에 앞으로 그들과 친해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학생선수들은 수업에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학생선수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들은 ‘공부와 별개’의 삶을 살 것이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선수와 학업을 연관 짓지 않는다. 고정관념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을까? 적어도 내가 만난 내 동기 학생선수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다. 학업병행을 통해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운동 이외의 진로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동기중 멀리뛰기 학생선수는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일반학생인 나보다 학업에 투하는 시간이 더 많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그녀를 보면 ‘공부와 별개’라는 학생선수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바뀐다. 그녀는 일반학생과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탁구선수 출신 안국희는 3번의 도전 끝에 체육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다.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던 그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다양한 시련을 극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대학 동기인 학생선수를 판단했을까?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다양하다. 그 흐름에 나 역시 동참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기준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사실이 아닌 편협된 시각으로 그들의 삶, 생각, 의지와는 별개로 그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규정했다.

“군맹무상(群盲撫象)”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주변을 판단한다. 내 생각, 혹은 사회적 기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채. 편견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무색, 무취, 무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념과 판단.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학생선수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다. 대부분 편견 때문이다.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의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학생선수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내가 경험한 내 동기.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남들보다 노력한다. 학생선수도 학생이다. 두 가지 업을 병행하는 내 동기.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한다.



# 尹 “엘리트 스포츠 전폭 지원”... 체육도 文 정부 지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나 스포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할 뜻도 밝혔는데, '메달보다 인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와 명확하게 다른 체육 정책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으로 뜨거운 진천선수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겉옷까지 벗고 양궁 금메달리스트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는 직접 활시위를 당깁니다.

[김우진 / 양궁 국가대표·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오른쪽 눈으로 노란색을 조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세 손가락... 하나 둘 셋! (와!!!!!!!)]

천2백 평, 풋살장 여섯 개 크기의 체력 단련 시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선수들과 가까이 호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훈련 시스템을 살피고, 재활치료 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계획하고 있는 좋은 성과 내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민선 2기로 선출된 시·도 체육회장 등 체육인 천6백여 명 앞에서 윤 대통령은 '엘리트 스포츠'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활용해 '공정 논란'을 촉발한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 사태를 시작으로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해 체육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문재인 정부 스포츠 정책과 작별을 선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때 FIFA 회장이 축구 시장의 공식통계가 100조 원가량이지만 실제로는 몇 배가 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스포츠 산업을 잘 키워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과 엘리트 선수 양성, 국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복지, 이 '삼위일체'가 윤석열 정부의 스포츠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료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142058401620](https://www.ytn.co.kr/_ln/0101_202302142058401620)

## 대학생 마케터 모집

KBO와 각구단이 뽑는 '대학생 마케터'  
노동착취는 아니죠?

딜레마다. '기회 제공' 측면과 '노동력 착취' 사이에서 말이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각 구단들이 새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을 뽑는 등 분주하다. 매년 이 시기에 KBO가 선발하는 '대학생 마케터'도 어김없이 공고가 나왔다. 인기도 많다. 20: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다. 그런데 이 '대학생 마케터', 문제는 없을까.

취업준비생 A씨는 KBO 대학생 마케터로 선발돼 1년간 일했다. A는 "월 5만원을 지급받고 일했다. KBO 대학생 마케터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활동을 한다"며 "제작하는 콘텐츠마다 투여되는 시간이 달랐다. 특히, 영상 편집 및 제작과 포토샵 업무를 맡은 마케터는 업무량이 상당했을 거다. 이들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5만원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도 한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대학생 마케터'를 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코로나19팬데믹(전세계대유행) 이전 한 프로야구단에서 대학생 마케터로 일했다. B는 "교통비 정도만 받았다"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진행한 업무에 비해 적은 일당을 받은 것은 맞다. 노동 착취라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지난 2019년, 모 프로야구단에서 일한 대학생 마케터가 고용노동부에 해당 구단을 노동 착취로 신고를 한 뒤로, 대부분의 구단이 대학생 마케터 선발을 중단했다. B가 일한 모 구단도 현재 대학생 마케터 선발을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구단 관계자는 "받는 돈에 비해 과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한 학생 측에서 구단을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 부담된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대두한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화, 키움, 롯데, NC 구단 등은 2018~2021년을 마지막으로 대학생 마케터 선발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향후 대학생 마케터 선발 계획은 따로 없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KIA 관계자는 "운영 당시 마케터들이 학교 수업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등 연속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폐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대학생 마케터를 선발하고 있는 구단도 있다. 두산베어스다. 구단측은 "최저시급을 준수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 마케터들은 구단행사 참여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해당 분야 관심 및 만족도 충족은 물론 취업을 위한 경력에도 도움된다는 피드백을 꾸준히 받고 있다"며 대학생 마케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KBO 역시 "회의 빈도는 평균 월1~2회로 진행된다. 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5만원 외에 식사·교통비 등 기타 제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활동비가 예년보다 상향됐다. 시험 기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빠져도 활동비를 지급한다. 창작물과 성과물에 대한 댓가의 의미보다는 개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개념으로 지급해왔다"고 했다. 업무 부담에 비해 활동비가 적지 않다는 해명이다.

객원 마케터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 한정된 것도 아이러니다. KBO관계자는 "젊은이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20살에 2년제 전문대학 진학해 졸업한 22살 청년은 자격이 박탈되고, 재수·삼수를 하고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해 군 제대까지 마치고 휴학 중인 27살 청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는 비단 KBO와 프로야구 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농구·배구 등 프로 스포츠 구단과, 대기업, 그리고 언론사까지 서포터즈, 객원 기자, 객원 마케터 등 직함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최저 시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엄밀히 이들은 고용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년 나오는 지적이지만, 그럼에도 철저한 '을'인 예비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지원할 수밖에 없다.

취업 트렌드가 직무 유관 경험자 우대로 바뀌며 유관 업무 활동 경험 하나가 소중한 오늘날, 기관과 기업이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방패막이 삼지는 않았는지 '갑'의 고민과 자성도 필요하다.



# “감독, 선수가 욕하고 때리고 살해 위협까지” 英 심판 900명 단체 호소

영국 축구 심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4일(한국시간) “영국 하부리그에서 축구 심판으로 활동하는 927명을 설문 조사했다. 대다수가 언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293명은 감독, 코치, 선수, 관중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먹으로 맞거나, 박치기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은 심판도 많다. 57명은 자신 혹은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06명은 FA의 심판 처우가 형편없다고 답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하부리그 심판을 향한 언어적·신체적 공격은 굉장히 부당하다. 올해 안에 심판 가슴에 바디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선수 및 감독의 부적절한 언행을 녹음하고 녹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FA는 “이와 같은 문제로 유소년 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나 감독은 그 어떤 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으며, 상위 리그로 진학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경기장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BBC'는 17세 이하 심판 12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 조사(복수 응답 가능)를 진행했다. 이들 중 감독·코치로부터 욕설을 들은 심판은 105명, 관중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심판은 109명, 선수로부터 욕설을 들은 심판은 102명으로 나타났다.

몇몇 심판은 자신의 사례를 들려줬다. 30세 남성 심판 라이언은 “주말마다 심판을 보러 나간다. 경기 시간 90분 내내 욕을 먹고 일당으로 30파운드(약 4만 6,000원)를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라이언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쫓아오자 뒷골목에서 1시간 이상 숨어있었던 경험도 고백했다.

18세 여성 심판 메건은 유소년 리그에서 한 학생을 퇴장 조치했다가 이 선수의 부모로부터 주먹질을 당했다. 메건은 “학부모들의 욕설을 들어보면 왜 축구장에 여성이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건은 “그 학부모는 고작 6경기 출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대표 공격수로 활동한 크리스 서튼은 “심판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프리미어리그처럼 상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튼은 축구 심판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며 성장한 축구인이다.

# 추신수의 '작심 발언' 왜 팬들은 외면했나?

SSG 랜더스의 메이저리그 출신 외야수 추신수(40)가 설화를 일으켰다. 프로야구 오프시즌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추신수는 지난 1월21일 댈러스 한인 방송에 출연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표팀이 당장 성적을 우선하기보다는 젊은 유망주를 더 뽑았어야 했다며 이들이 "(국제대회에) 얼굴을 비춰서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한국 야구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WBC는 축구로 치면 FIFA 월드컵에 비견되는 무대다. 그래서 최고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 자국 리그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외국 프로야구단에 선수가 스카우트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표팀 선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선발되지 못한 강속구 투수 안우진(키움)에 대한 언급은 심각했다. 추신수는 "한국이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우진의 탈락은 "불합리"하다며 "야구 선배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고도 했다. 피해자가 아닌 누가 안우진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추신수는 안우진을 대표팀에 뽑아야 하는 이유로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 야구를...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배님 다음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들었다. 결국 안우진이 야구를 잘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추신수의 발언은 '야구만 잘하면', 지금 완성된 투수가 아니더라도 대표팀에 뽑혀 해외 진출 기회를 누려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선배들이 나서서 대표팀 탈락을 막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져버린다.

추신수만을 탓하기도 어렵다. 것처럼 생각하는 전현직 선수가 드물지 않다. 많은 선수가 학창 시절부터 '야구만 잘하면'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폭력을 포함해 학교운동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는 이렇게 정당화된다. 2020년 국가인권위가 대학운동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운동능력 향상과 승리를 위해 스포츠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20%를 넘었다.

하지만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답은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 시절 야구를 주로 취재했지만 다른 종목 선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야구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야구네요,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입니다"라는 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도 했다. 비하 아래에는 야구에 대한 부러움이 깔려 있었다.

야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인에게 무슨 '야구 DNA'가 새겨져 있을 리는 없다. 한국 야구의 위상에는 우연 혹은 스포츠 외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 야구는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시절인 1904년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황성 YMCA 야구단을 창설한 데서 시작한다. 본격적인 발전은 일제 식민지 시절 교육과정에 야구가 포함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였고,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 11월 발간된 잡지 <개벽>에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단체 구기종목이 야구라고 소개돼 있다. 조선 야구는 당초 재조선 일본인 야구와 별개로 운영됐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엔 사실상 일본 야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 야구는 시대와 공명해왔다

이 시대 일본인 팀을 압도한 축구와 달리 야구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결핍은 열망으로 이어졌다. 일본인 학생이 다니던 중등학교는 대부분 야구부를 운영했다. 해방 이후 이 학교들은 신생 대한민국의 명문 고교로 재편됐다. 나라를 되찾은 한국 학생들이 야구부 선수가 됐다. 새로운 명문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종목이 야구였다.

한국 야구는 1970년대 고교야구 인기가 급상승하며 도약한다. 1970년대에는 급격한 이촌향도가 일어났다. 1960년 서울 인구는 245만명이었지만 1976년에는 72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단한 서울살이를 하던 이주민에게 당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출신 지역 고교팀 경기는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1970년대 고교야구 인기를 계승한다. 프로야구 출범은 제5공화국 우민화 정책과 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억압적인 유신시대와 구별되는 '자유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교육수준 향상을 누리기 시작한 국민에게 미국과 일본에서 성행하는 프로야구는 '선진국'의 한 상징이었다.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1994년이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기 2년 전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파탄을 맞는다. 고난을 겪던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박찬호의 투구는 큰 힘이 됐다.

이렇듯 야구는 시대와 공명을 해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지금 한국 사회와 체육계에서 무척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WBC 기술위원회에 참가한 추신수의 선배들이 결국 안우진을 뽑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불합리"로 일축한 건 추신수의 단견이다.

추신수는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16시즌을 뛰었던 메이저리그도 사회 변화와 달라진 가치관을 선수 징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1987년 LA 다저스의 유능한 단장이던 알 캠퍼니스는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왜 메이저리그에는 흑인 감독이나 단장, 사장이 적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흑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틀 뒤 해고됐다. 메이저리그가 2015년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야구계 악순환,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지난해부터 전국을 누비며 학생 야구선수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의 지도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들의 불만은 하나같이 고용 안정이다. 90% 이상 비정규직이라 애로 사항이 많다고 답답해 했다. 조금 더 체계화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A고교 감독은 “학교에서 조리사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이전엔 특별기술교사로 학교에서 채용하긴 했는데, 이젠 없어졌다. 전환 분위기에서 우리 처지도 바뀌었으면 한다”고 하소였했다.

사실 우리나라 각 분야에 비정규직은 많다. 비단 아마 야구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야구의 뿌리인 아마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실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아이러니 하고 부조화스러운게 있다. 고용불안정으로 괴롭다고 읊소하는 비정규직 지도자들조차도 학교에서 쉽게 잡은 기회(직업)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만 한정해서 보면, 직업군으로 프로야구선수 외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마선수가 프로선수가 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미·일이 4% 수준이라면 우리는 10% 정도 된다. 10개구단이 매년 1000여명의 학생중에 약 100여명의 선수를 뽑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프로가 쉽게 되니 배부른줄 알아라”고도 한다. 그 지적에 토를 달고 싶진 않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작 해결해야할 문제는 미·일처럼 프로야구 외에 야구 직군이 많이 생겨야한다는 거다. 모두가 프로선수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어린 선수들이 미·일처럼 실업, 독립리그 등 다단계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나아가 지도자로의 길도 다양해져야 한다.

더구나 우리 야구계는 힘들게 직업 야구인이 되어도, 생명이 짧다. 아마 지도자도 많은 경우, 1년 점수제로 계약한다. 10년 이상 베테랑 감독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자릿수가 적다보니 뒤에서 비방과 암투도 많이 벌어진다. 동문회 등 주변 입김도 강하다. 야구인으로 부끄럽지만 아마야구의 현실은 아사리판이다.

그러다보니, 지도자들은 성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주변 눈치도 봐야한다. 구조적으로 감독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환경이다.

결국 야구 지도자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학생들을 소신있게 지도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자정의 움직임도 보인다. 금품수수, 향응, 폭행 등 비위 지도자는 바로 옷을 벗는 문화가 정착됐다. 또한 정규직은 아니라도 무기계약직 등 다른 형태의 고용도 이뤄지고 있다.

모두들 인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야구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 선수들은 프로에 못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가도 야구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런데 야구계에 안정된 직업군이 늘어나면, 학생들도 프로선수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프로야구가 말라간다고 하는데 야구의 정점이 프로야구라면, 가장 기반이 되는 건 아마야구다. 프로야구를 살리려면 더 나아가 한국야구를 성장시키려면 답은 아마야구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야구 지도자부터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다.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아보자. 물론 야구 지도자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는게 최우선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영상] '귀신 잡는 오른발 후리기'로 태극마크 잡은 고등학생 태권도 국대 홍효림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8802>

사우디, 아시안컵 이어 클럽 월드컵까지... '스포츠 워싱' 비판 거세져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80>

팜 학생선수 위한 롯데의 특별한 재능기부... '일타 강사' 김평호 코치 "프로의 번트란?" [SS 현장속으로 feat. 영상]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99978?ref=naver>

취임후 처음 인천선수촌 찾은 尹대통령 "스포츠산업 활성화 위해 엘리트스포츠 적극 지원"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2160100110600014365&servicedate=20230215>

[튀르키예 강진] 배구시합 왔다가 참변... 학생선수단 39명 장례식 눈물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12800009?input=1195m>

KB손해보험 선수들의 기부 릴레이는 계속 된다

<http://osen.mt.co.kr/article/G1112045835>

"내 아내와 바람폈나"... '야구단감독 폭행' 변호사, 학생·코치에도 위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5766635512488&mediaCodeNo=257&OutLnkChk=Y>

"코치님 조금 일찍 나와주시면..." 독기 품은 천재타자, 열혈 학생으로 변신하다 [오!썸 투손]

<http://osen.mt.co.kr/article/G1112043801>

"여름엔 수영, 겨울엔 스키... 여름-겨울 패럴림픽 모두 도전 꿈"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30217/117925155/1>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